『신황정통기』(神皇正統記)』에 나타난 신국사상과 「가미(神)」로서의 천황*

최 유 경**

들어가는 말
Ⅰ. 신성한 천황, 몰락하는 천황의 행방
Ⅱ. 『신황정통기』의 황위의 '정통성'과 '정리(正理)'
Ⅲ. 삼종의 신기와 이세신도(伊勢神道)
Ⅳ. 지엔(慈円)의 '도리(道理)'와 지카후사의 '정리(正理)'
맺는말

들어가는 말

명치시대, 막부체제하에서 조용히 세월을 보내고 있던 천황이 다시 실권을 잡은 가미(神)로서 일반인들 앞에 등장했다. 막부정권하의 천황은 쇼군에 의해 권위가 주어지고, 쇼군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한을 받던 소극적 권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천황을 중심으로 서구의 문물, 제도를 도입하여 서구열강에 뒤지지 않는 근대적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던 명치정부는 천황을 근대군주로 재탄생시켰다. 하지만, 타키 코우지(多木造二)가 지적한 것처럼 명치유신 후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민중의 생활은 에도시대와 별반 달라질 것이 없었고, 여전히 천황은 오랫동안 민중의 현실생활과 유리된 곳에 있는 소원한 존재였다.[1] 이에 명치정부는 천황의 친정(親政), 동행(東幸) 등 대외활동을 통하여

* "이 논문은 2004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4-000-A000471)."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객원연구원

1) 多木造二, 『天皇の肖像』, 岩波親書, 1997년, 5-9頁. 1872년5월23일, 오사카에서 시작된 천황의 순례는 1885년까지 이어졌다. 한편, 천황의 주권이 아마테라스의 정통을 이어받은 만세일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천황으로는 처음으로 이세

사람들에게 천황이 명실 공히 군주라는 것을 인식시키려 하였다. 한편으로는 기기신화(記紀神話)를 근거로 천황과 관련된 일련의 연중행사의 정비를 통한 천황의 초월화와 신격화작업을 본격화하였다.

현재, 일본의 헌법상, 천황은 상징적 존재로 국정 상 독특한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명치시대에 제정된 일본의 헌법에는 천황에 관한 17개 조항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제국은 만세일계(万世一系)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第一条), 「천황은 신성불가침한 존재이다」(第三条),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 통치권을 총괄하고 이는 헌법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행한다」(第四条) 등은 주목할 만한 조항이다. 이 헌법에 의하면 천황은 단순한 상징적 존재가 아닌 '신성불가침'한 실질적인 '국정의 총괄자'로 일본은 이러한 만세일계의 천황에 의하여 통치되는 국가라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역사를 되돌아보면 황위가 현재의 천황가(天皇家) 이외에 이양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황위가 적통이 아닌 방계로 계승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천황을 중핵으로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천황에 의한 직접지배체제 속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정통성을 확립하려고 하였던 명치국가는 천황가가 하나의 혈통으로 신들이 지배하던 시대로부터 계속되었다는 이미지를 창출하였다. 이와 같이 혈통과 황위를 결부시킴으로 황위의 신성함, 나아가 천황을 살아있는 현신(現人神)으로 재창조하였고 일본은 현신인 천황이 지배하는 신국이라는 내셔널리즘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세계는 절대왕권제가 붕괴되고 봉건제에서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공화제로 나아가는 있는 가운데 일본만이 명치유신을 통하여 왕정복고를 성공시키며, 고대사회의 정치형태인 제정일치제도를 부활시켰다.

그런데, 코우치 쇼스케(河内祥輔)에 의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만세일계」는 17세기 유학자들이 중국에 대한 일본 황위를 정통성을 논하기 위하여 사용된 사례가 있지만, 명치헌법에 명시되면서 보급되어진 명치시대의 조어라고 지적한다.[2] 그렇다면 신성한 천황의 이미지는 언제부터 만들어진 것일까. 천황을 천손 강림한 인물로 묘사한 가장 오래된 예로는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로 이 신화를 역사로 체계화

신궁을 참배하였다. 대일본제국헌법이 성립한 1889년, 천황의 초상화에 대한 예배와 교육칙어의 봉독이 포함된 의례가 행해졌다.

2) 河内祥輔, 『日本史 リブレット22 中世の天皇観』, 山川出版者, 2003年, 2-3頁.

시킨 것은 기타바타케 지카후사의 『신황정통기』이다. 일본역사상, 처음으로 조정(朝廷)이 교토와 요시노(吉野)로 2개로 존재하였던 남북조시기에 저술된 이 서적은 요시노의 조정, 즉 남조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대일본은 신국이다. 천조(天祖)가 처음으로 기반을 만들고 일신(日神)이 오랫동안 통치하였다. 이는 일본에만 있는 일로 다른 왕조에는 없다. 그러므로 신국이라 할 수 있다.」(신대)[3]라는 열정적인 문장으로 시작되는 『신황정통기』는 천조(天祖)인 쿠니노토코다치노가미(国常立神)가 일본을 창조하고, 아마테라스(天照大神)가 오랫동안 통치해온 세계유일의 신국이라는 주장이다. 지카후사의 신국론은 천황이 천손이며, 황위는 신들의 시대로부터 일관되게 이어져왔다는 것에 근거한 것으로 황위의 정통성은 아마테라스가 자신의 손자인 니니기노미코토(邇邇藝命)가 강림할 때 아마테라스로부터 하사받은 신경(神鏡), 신검(神劍), 구슬, 즉, 삼종의 신기(三種の神器) 의 전승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하였다.

근대적이라 할 수 없는 오래된 전통에 근거하여 천황을 끌어내 막부정치에 종지부를 찍은 명치정부는 스스로의 정통성을 천황의 정통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 역사를 재창조하고, 전설로서 역사를 보충하여 천황이 아마테라스의 직계로 하늘에서 강림한 현신이며 천황의 황위와 혈통이 신대(神代)로부터 단 한 번도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혈통으로 이어져온 「만세일계」라는 것을 헌법으로까지 규정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기타바타케 지카후사가 『신황정통기(神皇正統記)』에서 삼종의 신기가 있는 곳이 정통하다는 남조정통론을 채택하여[4], 정치적 선전슬로건으로 이용하였던 것이다.[5]

---

3) 岩佐正, 時枝誠記, 木藤才蔵校注, 『日本古典文学大系 神皇正統記 增鏡』, 岩波書店, 1965年, 41頁.

4) 1877년, 원로원에서는 『황위계승편』을 작성하여 고다이천황은 가짜신기를 코우곤천황에게 건냈다는 공식견해를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오키노에 유배당할 당시 고다이고천황은 황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1911년, 남북조 중 어느 쪽이 정통인가 하는 논쟁이 제국의회에서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대일본사」의 기술에 근거하여, 명치천황의 재판에서 삼종의 신기를 소유한 남조가 정통으로 인정하고 남북조시대는 남조가 요시노에 있었던 것에서 「요시노조시대」라고 불렀다. 패전전의 황국사관에서는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천황을 반역한 역적, 대악당이며, 쿠노노기 마사시게(楠木正成)나 닛타요시사다를 충신으로 취급하는 이데올로기적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 결과, 1880년전후 남조에 대한 공신으로 신사건설을 하게 되었다.

5) 国学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編, 『近代天皇制と宗教的権威』, 同朋舎出版, 1922年, 41頁.

본 연구는 『신황정통기』와 그 보다 100여 년 전인 헤이안말기에서 가마쿠라초기에 걸친 정치적 동향을 도리(道理)의 변모라는 관점으로 일본의 역사를 관망한 지엔(慈円)의 『우관초(愚管抄)』와의 비교를 통하여 천황론, 군신론, 신국사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지엔은 불교의 「도리(道理)」로서 불법이 왕법을 지킨다는 불교 특유의 현실긍정론, 즉 불교의 일본유입을 천황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일본의 역사와 변천을 신들의 존재와 신들의 보살핌으로 파악하려 한 지카후사는 「정리(正理)」로서 「신대와 천황과의 직결, 이를 통치하는 자로서의 유교적 국가체제의 실현」을 역설하였다. 신도적 관점에서 일본의 신국론을 주장한 지카후사는 「신국의 영이 깃들었다는 것은 보기(宝器)가 있다는 것」이라며 신국의 증거로 삼종의 신기의 전수에서 찾았다. 신화에서 천황의 전통의 근거를 찾으려 하였던 지카후사의 인식은 현재 일본헌법의 천황의 상징성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삼종의 신기를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불교와 신도라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역사를 논한 지카후사와 지엔의 두 서적을 통해 중세인들이 천상을 어떻게 인식하였으며, 난세의 한가운데에서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려 하였던 지엔과 지카후사의 「도리」와 「정리(正理)」의 실체를 고찰하는 것은 일본 역사의 전환기였던 가마쿠라말기에서 남북조시대에 걸쳐 천황의 존재의미와 일본이 주장하는 신국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Ⅰ. 신성한 천황, 몰락하는 천황의 행방

남북조시대의 신국사상을 논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기타바타케 지카후사(北畠親房, 1293-1354)이다. 일본역사상, 가장 격동기라 할 수 있는 가마쿠라말기에 태어난 지카후사는 남조의 충신으로 다이카쿠지(大覚寺)계통인 고다이코천황(後醍醐天皇)이 지묘인(持明院)계통인 북조에 대한 정통하다는 『신황정통기(神皇正統記)』(1339)를 저술한 인물이다. 그의 남조정통론은 다카우지가 이끄는 북조의 승리로 북조정통론을 주장하는 무로마치막부의 영향 하에서 부정되었다. 그러나 에도 말부터 재평가되기 시작한 『신황정통기』는 명치시대, 신국으로서의 일본 및 '신성불가침'한 존재로서의 천황상의 이론적 기

반을 제공하였다. 신국이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황위 계승의 정통성과 신국으로서의 일본의 우월론을 주장한 지카후사의 견해는 천황을 중핵으로 국가체제를 형성한 명치국가의 역사관이 되었고, 명치이후의 남조정통론과 결부되어 지배를 위한 사상통제의 하나로서 황국사관의 기틀이 되었다. 남조 정통론은 명치이후 천황이 절대적 신성한 존재라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적 통치권이라는 세속적 권력을 가진 천황으로 거듭나게 하였다.

지카후사는 『신황정통기』의 집필목적을 「신도의 길이 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라의 근원을 모르게 되는데, 그것은 혼동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 과오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신대로 부터의 정리(正理)에 의한 황위계승을 말하려 하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생략하고 그 이름을 신황정통기라 하려 한다.」(신대)[6]라며 신도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오해의 단서가 되는데, 그 폐해를 없애기 위해 신대로부터 정통한 황위계승의 경위에 대해 서술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폐해란 고다이고천황의 겐코의 난으로 인한 폐위와 코우곤천황(光厳天皇)의 즉위 등을 가리키는 말이겠지만, 『신황정통기』가 황위계승 과정이 내용의 주 골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카후사가 살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마쿠라후반기에서 남북조시대말기는 종래 질서나 지배구조의 변화에 더불어,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민중의 의식이 급변화하던 시대였다. 가마쿠라막부를 설립한 겐지(源氏)의 지배가 겨우 3대에 걸쳐 끝나고, 이어 호우죠(北条)집권정치에 의한 득종체제(得宗体制)으로 막부체제는 강화되었지만, 땅을 소유한 지주층이 급성장하면서 사회구조는 크게 변질되어 갔다. 그런 가운데 고다이고천황은 막부타도(倒幕)를 위하여, 쇼츄의 변(正中の変,1324)과 겐코의 난(元弘の乱,1331)을 일으켰지만, 그 모두에 실패하고 겐코의 난 다음 해에는 고다이고천황이 오키노(隠岐)에 유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오키노를 탈출한 고다이고천황은 쿠스노기 마사시게(楠木正成), 닛타요시사다(新田義貞)와 더불어 거병에 성공하여 1333년, 가마쿠라막부를 멸망시킨 후 연호를 겐무(建武)라고 개정하고, 헤이안시대의 원정이나, 섭정, 관백을 두지 않는 천황의 친정정치, 즉, 왕정복고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코우곤천황을 옹립한 아시카가 타가우지(足利尊氏)의 반기로 교토를 쫓겨난 고다이고천황은

6) 岩佐正の他 注釈, 『日本古典文学大系87 神皇正統記 増鏡』, 岩波書店, 1965年, 49頁.

요시노(吉野)로 도망쳐, 남조를 설립하였으나 고다이고천황의 사망으로 그의 아들, 노리나가(義良)가 고무라가미(後村上) 천황으로 즉위하여 아시카가와의 싸움을 계속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남조편에서 싸운 지카후사는 동국의 무사를 고다이고천황 측으로 결집시키는 한편, 고다이고와 고무라가미(後村上)가 진정한 천황이며, 다카우지가 옹립한 코우곤(光厳), 고니죠(後二条)는 정통한 천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를 세상에 인식시키기 위하여, 지카후사는 중국과 일본의 황위계승을 비교하며 일본의 황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중국에서는 「그 옛날 세상이 순수하고 바르게 움직이던 시대에도 현자를 골라 왕위에 올리는 일이 있어 황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다」, 「복의씨 후에 천자의 씨성이 36번이나 바뀌었고, 난도 극심하였다」며 왕조의 교대가 심하고, 황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다. 유일하게 일본만이 천지가 열린 그 때부터 오늘날까지 아마테라스오미카미의 뜻을 받은 황위계승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서론)[7]며 일본은 중국처럼 역성혁명은 없으며 왕조도 황위도 단절되지 않고, 신대로부터 하나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즉, 일본의 천황은 신이 천지를 창조하였을 때부터 신에 의해 정해진 존재로 지금까지 단절없이 이어져 왔는데, 이러한 일은 일본에만 국한된 것으로 외국에서는 그 예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중국을 의식한 발언으로 황위계승에서의 혈통의 일관성을 강조함으로 중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성과 더불어 일본이 신국이라는 것을 알리려 하였다. 이처럼 지카후사는 중국과 인도에 까지 시야를 넓혀 일본신화를 통한 내셔널리즘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신국론에 대하여 수에끼 후미히코(末木文美士)는 「신국설은 꼭이나 일본의 우위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석가의 구제로부터 멀리 있는 소국이므로 부처님이 이 땅의 신으로 출현하여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었지만, 지카후사의 신국론은 불교 등 다른 종교에 대한 신도의 우위를 논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지적하였다.[8] 또한, 쿠마가이 키미오(熊谷公男)는 나라시대에는 아마테라스의 직계자손, 또는 '이 세상에 나타난 신'이라는 명확한 관념이 없었는데, '치천하대왕(治天下大王)'에서 천황으로 변모하면서 일본을 통치하는 '신'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9] 천황이 신이 되는 근거는 8세기

---

7) 同上書, 48-48頁.

8) 末木文美士, 『中世の神と仏』, 山川出版社, 2003년, 83頁.

초에 성립된 기기신화(記紀神話)에서의 '천손강림' 신화에 의한 것으로 가마쿠라막부이전에도 일본을 통치하는 '신'으로서의 천황상은 존재하고 있었다. 수에끼의 지적처럼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처는 본지이며, 신은 수적에 불과한 존재였으나 지카후사의 신국론은 불교에 대한 신도, 중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성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후 일본의 신국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지카후사는 기기신화가 전하는 신화를 신화의 세계에서 끝내지 않고, 역사 안으로 끌어들인 역사관을 재창출하는 것으로 일본의 우월성과 정통성을 찾으려 하였다. 신화와 역사가 지속으로 연결된 세계관은 이미 기기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이를 의식적으로 파악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지카후사의 독자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지카후사가 이 시기에 '신적인 천황', 신국으로서의 일본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가마쿠라말기에 시작된 황위계승을 둘러싼 대립과 더불어 새롭게 부흥한 무사세력과의 주도권쟁탈이라는 당시의 정치세력과 깊이 관련되었다고 사려된다.

원래, 천황은 야마토(大和)세력을 중심으로 열도각지의 연합체 연맹의 수장에 불과하였지만, 5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중국에서 법과 관료제 등 율령제도가 도입됨으로 나라시대, 헤이안시대에는 천황이 직접 친정(親政)하는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존재로 탈바꿈하였다.[10] 그러나, 9세기후반부터, 천황의 외척이었던 후지와라가(藤原家)는 어린 천황을 세워 천황을 섭정하고 성인이 되면 천황의 자문역인 관백(関白)으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후지와라의 섭관정치(摂関政治)는 천황의 힘은 급격히 쇠퇴시켰는데[11], 1068년, 후지와라씨를 외척으로 두지 않은 고산죠(後三条)천황의 즉위로 섭관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원정(院政)정치의 초석을 닦았다. 어린 왕자에게 황위를 물려주고 상황(上皇)이 된 시라카와(白河)천황은 천황대신으로 국정을 장악하고, 원정을 확립하였다. 천황 대신 상황이 새로운 주권자가 된 원정의 출현은 천황을 정점으로 한 고대국가와 이를 둘러싼 국가, 사회의 구조변화를 초래하였다.[12] 율령재정의 붕괴로 율령국가는 해체되고 국가는 분권적인 형태로 변화해 갔다.

상황과 천황과의 대립은 겐지(源氏), 헤이지(平氏)와 같은 무사들의 권력 확

---

9) 熊谷公男, 『日本の歴史03 大王から天皇へ』, 講談社, 2001년, 13-15頁.

10) 大隅清陽, 「君臣秩序と儀礼」 『日本の歴史 8 古代天皇制を考える』, 講談社, 2001년, 34頁, 36頁.

11) 同上書, 83-85頁.

12) 大島亨, 「中世王権の創出と院政」 『日本の歴史 8 古代天皇制を考える』, 前掲書, 255-49頁.

대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드디어 1102년, 미나모토 요리토모(源頼朝)에 의한 가마쿠라막부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친정시대를 이상으로 삼은 고다이천황은 가마쿠라막부를 타도할 계획을 세웠지만, 사전에 발각되면서 일본사상 초유의 천황이 유배되는 수치를 당했지만, 결국, 고다이고천황은 가마쿠라막부를 멸망시켜고, '일통의 천하(一統の天下)'를 실현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의 배신으로 고다이고천황은 요시노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다. 막부정권의 등장과 혼란스러운 남북조의 상황은 천황으로서 가진 권한도 왕으로서의 지위도 상실시켜고, 겨우 종교적 권위만이 남아있는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다.[13] 새로운 권력의 주체로서의 무사의 등장과 천황제의 위기적인 상황은 천황만이 아니라 천황에 의해 그 존재의미를 부여받은 귀족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대를 대표하는 귀족의 한 사람으로 고다이고천황을 지지한 지카후사는 「천황은 원(院)에서 정치를 행하였으므로 섭관의 직분은 형태뿐이었다. 하지만, 이 이후 예로부터의 정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는 섭관정치 때는 섭관이 정권을 쥐고 있어도 공적인 일은 천황의 선지(宣旨),관부(官符)에 의해 행해졌지만, 이때부터 원선(院宣), 청어하문(庁御下文)을 중용하게 되었고 재위의 천황은 그 즉위에 앉아있을 뿐이었다. 이 일이야 말로 난세의 원인이 되었다」(시라카와)[14]라며 천황을 무력한 존재로 전락시키고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원정정치를 비판하였다.

겐무친정(建武親政)을 이룩한 고다이고천황에 의한 친정은 헤이안시대의 정치형태의 복귀로 지카후사도 이를 이상적 정치형태로 생각하였다. 땅에 떨어진 천황과 귀족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천황의 황위의 정통성과 신성함에 대해 기술한 지카후사의 주장은 상류귀족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에 근거한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천황론은 이후 신국으로서의 일본의 이미지를 만드는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천황의 유배와 두 개의 조정이 존재했던 남북조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에서의 천황이란 무엇이며 신하는 어떤 존재인가를 재고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물음에 지카후사는 제1대의 진무천황에서 제96대의 고무라가미천황에 이르기까지의 황위계승과정을 통하여 역사의 정리(正理)란 무엇이며, '정통'한

---

13) 井上清, 『天皇・天皇制の歴史』,

14) 岩佐正の他 注釈, 『日本古典文学大系 87 神皇正統記 増鏡』, 前掲書, 142頁.

황위란 무엇인가를 답하려 하였다. 지카후사가 말하는 황위의 정통성이 무엇인지를 『신황정통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려 보기로 하자.

Ⅱ. 『신황정통기』의 황위의 '정통성'과 '정리(正理)'

지카후사는 『신황정통기』의 서문을 「대일본은 신국이다. 천조가 처음으로 기반을 만들고 일신이 오랫동안 통치하였다. 이는 일본에만 있는 일로 다른 왕조에는 없다. 그러므로 신국이라 할 수 있다. 신대에는 토요아시하라노치이호노아키노미즈호노쿠니(豊葦原千五百秋瑞穂国)라고 하였다. 천지개벽초부터 이 이름이었다. 이는 천조(天祖)인 쿠니노토고다치노미코토(国常立尊)가 오가미메가미(陽神陰神)로부터 하사받은 칙(勅)에 드러난다. 아마테라스오가미가 천손에게 나라를 이양할 때에의 신칙(神勅)에도 이 이름이 있으므로 이는 이 나라의 근본이라 생각한다.」(신대)며 천조, 즉 쿠니노토고다치(天祖国常立)가 이 세상을 창조한 후 일본은 오랫동안 아마테라스에 의해 통치된 유일한 신국(神國)으로 신대로부터 토요아시하라노치이호노아키노미즈호노쿠니라 불리었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신대로부터의 정리(正理)에 의하여 황위가 계승되어진 것을 전하기 위해」[15] (신대)'신황정통기'라는 제목을 붙였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의하면 일본열도를 생산한 이자나기(伊弉諾)와 이자나미(伊弉冉)라는 부부신이 일본을 지배하는 군주로 아마테라스를 출산하여 천상계(高天原)의 주인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태양의 모습으로 태어난 아마테라스는 스스로 지상의 군주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양자, 오시호미미의 아들, 니니기를 다카치호(高千穂)로 내려보내 가시와라(橿原)에 도읍을 정하였다고 전하고 있다.[16] 이렇게 천상에서 하강한 아마테라스의 천손은 「신대로부터 존엄한 분(尊), 즉 미코토(尊)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는 미코토(命)라고 불렀다. 인대(人代)가 되어서는 천황이라고도 부르고 있다.」(진무)[17]라며 신이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인간이 되면서 호칭도 천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건국신화의 요점은 천황이 아마테라스와 진무천황의 자손이며, 황위가 신대로부터 일관되

15) 同上書, 41頁, 49頁.
16) 坂本太郎他注釈, 『日本書記(一)』, 前掲書, 58頁, 110-122頁.
17) 同上書, 67頁.

게 그의 자손에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으로[18], 지카후사는 기기신화가 전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천황이 신과 하나의 혈통을 가진 천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대로부터의 정리(正理)에 의한 황위계승'이란 황실의 제1대 조상신인 아마테라스로부터의 정통성으로 황위는 천손강림한 아마테라스의 손자인 니니기의 직계가 계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의 천자가 하늘과 땅을 지배하기 위해 선택받은 존재였다면, 일본의 군주는 아마테라스의 직계라는 혈통의 정통성이 중시되었다. 천황의 존재를 신과 동격화한 이 신화는 천황과 귀족의 지위와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19]

지카후사는 역대천황들의 황위계승을 '신대로부터의 정통한 황위계승'과 그렇지 못한 계승으로 구분하며 세(世)와 대(代)로 그 정통성의 여부를 판단하였다. 대(代)는 초대 천황으로부터 황위즉위의 순서를 말하고, 세(世)는 초대 천황인 진무(神武)천황으로부터 고무라가미(後村上)천황까지 부자 일계의 정통한 혈통으로 황위계승의 본체라고 보고 있다. 세(世)로 표기되는 정통한 천황의 조건은 「황손은 진정으로 다른 이들과 다르며, 일본은 신대로부터 아마테라스의 후손이 황위를 계승하는 것으로 정해졌다.」(무라가미)[20]며 황손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신의 후손이 황위를 이어받는 것은 신대로부터 정해진 절대적인 원칙으로 「황손이 있을 경우는 방계가 아무리 현명하여도 결코 황위를 바라여서는 안된다.」(계타이)며 방계가 아무리 현명하여도 황위는 필히 적통이 계승되어야 하지만, 「황손이 끊겼을 때에는 현명한 사람이 황위에 즉위하여도 하늘이 용서할 것」(계타이)[21]이라며 적통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방계계승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역대천황 중에는 「일본은 신국이므로 아마테라스오미카미의 돌보심으로 황통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천황의 잘못을 저질러 치세가 길게 가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다. 결국은 정로(正路)로 되돌아왔지만 일시적으로 황통이 짓밟힌 적이 있는데 이는 모두 천황 스스로에 의한 것」(코우고)[22]이라며, 일본이 아마테라스의 은총을 입은 신국이지만, 천황의 수명과 혈

---

18) 『日本書紀』(神代下) 아마테라스가 황손 니니기노미코토에게 천황무궁의 신칙을 내렸다고 기술하고 있다. (坂本太郎他注釈 『日本書記(一)』, 岩波書店, 1994年, 130-132頁.)

19) 井上清, 『天皇・天皇制の歴史』, 明石書店, 1986년, 18頁.

20) 岩佐正の他 注釈, 『日本古典文学大系 87 神皇正統記 増鏡』, 前掲書, 134頁.

21) 同上書, 90頁.

통이 제대로 다 지켜진 것만은 아니었다고 언급하였다. 그것은 천황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천황의 부덕의 소치로 고산조천황은 「일본과 중국의 글, 현밀(顯密)의 가르침에 조예가 깊고 그의 시가(詩歌)는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 내려온다. 고레이젠인의 치세말, 세상은 혼란스러워 백성들의 근심이 많았다. 이 천황이 4월에 즉위하자 아직 가을의 수확기가 오기 전에 세상은 안정될 정도로 유덕한 군주」(고산조인)[23]였다며 고레이젠(後冷泉) 천황 때의 역병, 흉작, 천지지변 등 이상 현상이 고산조(後三条院)천황의 즉위로 사회적 불안은 사라지고 세상이 평안을 되찾은 예를 들며, 천황의 군덕이 치세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황자는 황위를 양위받고 정통한 천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만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천하만민은 모두 신의 자녀로 신은 만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본분으로 한다. 그러므로 천황이 아무리 존엄한 자리여도 천자 한 사람만 기쁘고 만민이 우는 것은 하늘이 용서하지 않고 신도 축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치의 좋고 나쁨에 천황의 운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천황을 따르는 신화로서는 군을 존경하고 민을 어여삐 여기며 하늘을 무서워하고 땅을 조심스레 밟으며 일월의 빛에도 자신의 마음의 더러움이 그 빛을 더럽히지 않을까 조심하고 비와 이슬을 보아도 자신의 행위가 반듯하지 못하여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 늘 반성해야 한다.」(고사가인)[24]라며 천황은 만민의 생활을 편안하게 돌보는 일에 주력하고, 신하는 몸을 겸손히 하고 하늘을 존경하고, 백성을 돌보고, 황은, 신은에 보답하는 것이 위정자의 의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지키후사는 「무릇 정도(政道)란 여러 곳에서 언급하였듯이 정직자비를 근간으로 하여 결단의 힘을 가지는 것이다. 아마테라스오미카미가 명확히 가르친 바와 같다.」(고다이고)[25]며 천황이 아마테라스의 가르침에 따르고, 정직자비에 근거하여 정치를 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천황에게 군덕을 요구한 지키후사는 「천황도 신하도 가미의 혈통을 받고, 혹은 신칙을 받아 하강한 신의 후손들」(신대)[26]이라며 황계와 황손과 마찬가지로, 신하도 신칙(神勅)을 받은 신의 자손으로 천황을 보필하기 위하여 천황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일본은 신대로부터 천황은 아마테라스오미카미의 자손이 황위를 계승하고, 신하는 아메노코야네의 자

22) 同上書, 124頁.
23) 同上書, 140-141頁.
24) 同上書, 163頁.
25) 同上書, 176-177頁.
26) 同上書, 61頁.

손이 이를 보좌하도록 되어있다. 겐지는 새롭게 등장한 신하이다. 덕도 공도 없는 자로 고관에 올라 자만하면 두 신의 진노를 살 것」(무라가마)[27]이라며 신대로부터 황위를 천손이 계승하는 것처럼 천황을 보좌하는 섭관가의 역할은 후지와라의 선조인 아메노고야네(天児屋)의 자손에게만 허락된 것이라며, 덕도 공도 없이 높은 지위에 올라 오만하게 군다면 겐지는 아마테라스와 아메노고야네 두신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천손강림신화는 중국이나 조선 등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지만, 신하도 천손과 함께 강림하는 이야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은 황위에 오르는 것도 천황을 보좌하는 신화도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정해졌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한 겐지나 다카우지(尊氏)처럼 무사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호우죠 요시도키(北条義時 1163-1224)의 아들, 야수도키(泰義1224－1242)에 대하여는 「쥰토쿠인은 쇼쿠의 난 이후 여전히 사도(佐渡)에 유배 중이었고 그의 아들들의 대부분은 쿄토에 있었다. 섭정정치가 대신이 그의 외가로 이 계통을 제위시켜 전처럼 정권을 독점하려는 뜻을 가마쿠라에 전하였으나 호죠 요시토키의 아들, 야수키의 배려로 고사노인을 천황으로 옹립했다. 진정으로 이는 천명이며 정리(正理)에 부합하는 것」(고사가인)이었다며 쥰토쿠인(順德院)의 외척인 섭정가, 구죠 미치이에(九条道家 1193－1252)가 제위를 쥰토쿠인의 아들로 옹립하려 하였지만, 야수토키는 고사가천황을 천황을 황위에 올린 일에 대하여 지카후사는 아마테라스의 현명함을 대신한 도리에 합당한 것이었다고 매우 높게 평가하였다. 더욱이 「야수도키는 마음이 바르고 정치도 성실하고, 사람에게 베풀고, 겸손하고, 귀족을 존중하고, 장원영주의 권리를 지켜주어 바람 앞에 쓰레기가 남지 않듯 천하는 곧 조용해졌다. 쇼쿠 이후 안정이 모두 그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야수도키는 덕정을 베풀고 법식(法式)을 엄격하게 하였다. 자신은 물론 친족 및 무사까지도 자신의 분수를 지키게 하고, 고위관직을 원하는 자가 없었다.」(고사가인)[28]며 야수토키의 높은 인격과 성실한 정치자세를 칭송하면서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었음에 불구하고 무관으로서의 분수를 지키며 고위고관을 고사한 점을 평가하였다.

그에 비하여 「다카우지는 그 공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천황의 총애와 상급이 각별하여 그는 천하를 정복한 요리토모가 된 심경이라도 된 것인

27) 同上書, 134頁.
28) 同上書, 162-163頁.

지 그는 4위인 사효에노카미(左兵衛督)가 되었다. 상전에게 감사의 말을 하기도 전에 다시 종3위, 드디어 산기(参議) 종2위까지 승진하였다. 관위만이 아니라 삼국의 리무(吏務), 슈고(守護)을 겸하여 많은 토지를 하사받았다. 동생, 나오요시도 종4위인 사마노카미(左馬頭)로 임명하였다. 그 옛날 요리토모는 비슷한 공을 세웠지만 무사가 고관고위에 오른 것은 국정을 어지럽히는 일이기에 그가 높은 자리에 있으므로 자손과의 단절을 초래하였다. 더군다나 다카우지의 선조는 요리토모, 사네토모 때는 장군의 친족이라 하여도 특별대우를 받지 못하고 일개 부하에 불과하였다.」(고다이고)며 요리도모와는 달리, 겐코의 난의 공적을 인정받은 다카우지는 천황에게 상을 받고, 지위도 종2위까지 오르는 한편, 삼국의 국수(国守), 수호(守護)의 직을 겸하면서 많은 토지를 하사받았다는 것을 지적하며, 무사의 고위관직으로의 승진은 정치적 혼탁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무사는 모두 수대에 걸쳐 조정에 적이었다. 조정에 편이 되어 그 집안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황은일 것이다. 나아가 충성을 다하고 공을 쌓아 이치에 맞는 기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건만 하늘의 공적을 훔쳐 자신의 것으로 하였다. 개자추(介子推)의 교훈을 배우려는 자가 없도다. 다카우지 일족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무사들이 승진하였고 그 중에는 궁중입성을 허락받은 자조차 등장하였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귀족사회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더욱 무사의 세상이 되었다'라 하였다. 무릇 정도(政道)란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정직자비를 근간으로 하여 결단의 힘을 가지는 것이다. 아마테라스오미카미가 명확히 가르친 바와 같다.」(고다이고)[29]라며 중국의 시인 개자추(介子推)의 예를 들면서, 충을 다하고 공적을 쌓는 것이 무사의 도리인데, 무사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천황의 황은을 배신하고, 겸양의 미덕을 지니지 못한 다카우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아마테라스의 가르침처럼 천황은 정직, 자비로 정치를 행하는 것만이 정치적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는 지카후사가 고무라가미천황이 아마테라스의 배려에 감사하고, 군덕을 양성하며, 덕정을 펼친다면, 현재의 동난도 곧 진정되고, 황운은 무궁하게 번창하게 될 것[30]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천황의 권위를 되찾고, 고다이고천황의 후계자인 고무라가미천황이 황위를 양위받는 것이 '신대로부터

29) 同上書, 176-177頁.
30) 同上書, 192頁.

의 정리(正理)에 의한 황위계승'이라는 지카후사의 주장은 북조로의 남조의 통합으로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살펴볼 때, 지카후사가 『신황정통기』를 통하여 주장하고자하는 '신대로부터의 정리(正理)에 의한 정통한 황위계승'은 황손 중에서도 지, 덕을 겸비한 적자에 의한 계승을 의미한다. 또한, 정도(政道)는 아마테라스로부터 일본의 통치를 위임받은 천황이 신의에 합당한 덕정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귀족과 무사 모두 절대적인 충성을 다하며 각각의 지위에 맡게 천황을 보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귀족의 입장만을 비호하는 그의 이러한 주장은 사회변혁과 역성혁명을 부정하는 것으로 유교적 사고방식에 반하는 것이었다. 천황을 정점으로 귀족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이미 흐트러진 곳은 제대로 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지카후사의 바램은 귀족에서 무사로 권력이 이양되는 전환점에 서있었던 당시의 퇴폐적인 귀족과는 대조적으로 강인한 의지를 가진 귀족의 정치적 주장을 종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지카후사가 황위의 정통성으로 거론한 조건은 황위계승에 관한 당시의 일반적인 이해에 근거한 것이지만, 황위의 전통성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삼종의 신기를 거론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지카후사는 일본의 우월성은 황위의 정통성이며, 천황의 정통한 계승이 아마테라스의 신의를 계승한 선제(先帝)의 의지에 의해 하사받은 삼종의 신기에 의하여 증명된다고 하였다. 천황의 정통성을 「삼종의 신기」와 연결시킨 것은 지카후사가 처음 주장한 것으로 그에게 있어 삼종의 신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Ⅲ. 삼종의 신기와 이세신도(伊勢神道)

삼종의 신기와 천황의 정통성은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기기신화에 의하면 아마테라스는 아마테라스가 다카미무스히(高皇産霊尊)와 상의하여 황손인 니니기와 황손을 보좌하기 위해 팔백만의 신을 지상으로 내려보냈는데, 그 때, 아마테라스는 니니기에게 거울, 검(쿠사나기,草薙), 구술(야사카니노마가타마,八尺瓊勾玉)이라는 3종의 신기를 하사하였다고 전해지는데[31], 삼종의

31) 坂本太郎他 注釈, 『日本書記』, 前掲書, 132頁.

신기의 하사의 의미를 지카후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오가미는 손에 보경을 들었다. 황손에게 하사하고 축복하시기를 '나의 아이여, 이 보경을 보기를 나를 보듯 하고… 야사카니노 마가타마(八坂瓊の曲玉)와 아메노무라쿠모(天の叢雲)의 검을 더하여 삼종이다. 또한, 이 거울처럼 분명하게 천하에 군림하고, 야사카니의 구슬처럼 뛰어난 기술로 천하를 다스리며, 신검을 차고 불순한 것을 처단하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의 신령으로 황통이 하나로 제대로 계승된 것은 진정으로 이와 같은 신칙이 보여준 바와 같다. 삼종의 신기가 세상에 전해진 것은 일월성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거울은 해의 몸(体)이며 구슬은 달의 정(精)이며 검은 별의 기(気)아니라(아마츠히코히코호니니기노미고).[32]

니니기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아마테라스로부터 삼종의 신기를 하사받았다는 기기신화가 전하는 이야기를 지카후사는 아마테라스가 자신이 지니고 있던 거울을 '자신을 보듯이 하라'는 축복의 말과 함께 구슬과 검을 함께 하사하는데, 이 삼종의 신기는 아마테라스가 니니기가 거울처럼 투명하게 천하를 비치고, 구슬이 굴러가듯 뛰어난 기술을 천하를 다스리고 신검으로 불순한 것들을 평정하라는 뜻으로 하사한 것으로 거울은 해의 몸을, 구슬은 달의 정기를, 검은 별의 기를 상징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면서 「삼종에 관련한 신칙은 제대로 나라를 보유시킬 길을 제시한 것이다. 거울은 단 하나의 사심도 없이 만물을 비추면 선악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 모습 그대로 감응하는 것을 덕으로 한다. 이는 정직의 본원(本源)이다. 구슬은 유화선순(柔和善順)의 덕이다. 자비의 본원이다. 검은 강리결단(剛利決断)의 덕이다. 지혜의 본원이다. 이 삼덕을 모두 갖추지 않으면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 … 그 중에서도 거울은 본(本)으로 종묘의 정체(正体)로 받들어야 한다」(아마츠히코히코호니니기노미고)[33]며, 나라를 제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신이 직접 삼기를 하사하였다는데, 그 중에서도 이세신궁의 정체(正体)로 받드는 거울은 삼종의 신기의 근간으로 여겼다. 삼기의 의미는 거울이 만물을 비추어 선악을 나타내는 덕으로 정직의 상징이며, 구슬은 유화선순(柔和善順)을 나타내는 덕으로 자비의 상징이며, 검은 강리결단(剛利決断)을 나타내는 덕으로 지혜의 상징이라고 해석했는데, 그 중에서도 정직을 제일의 덕으로 여겼다. 이렇게 삼기의 의미를 해석한 지카후사는 아마테라스

---

32) 岩佐正の他 注釈, 『日本古典文学大系 87 神皇正統記 増鏡』, 前掲書, 59-60頁.
33) 同上書, 60-61頁.

가 황손에게 삼기를 하사한 것은 삼기가 의미하는 정직, 자비, 지혜가 천하를 통치하는 황손이 겸비해야 할 세 가지 덕목이기 때문이라는 독특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삼종을 잘 마음에 세기고 받들어야 한다. … 이 나라는 삼종의 정체(正体)를 가지고 복 받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므로 일월이 하늘에 떠있는 한 그 어느 하나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고토바)[34]며, 일본은 삼종의 신기를 가진 혜택받은 나라로 「정통」한 천황은 그 어느 것도 없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조, 아마테라스의 신의를 나타내는 삼종의 신기를 황손에게 수여한 것은 천황이 천손이라는 증거이며, 삼종만이 황위의 정통성과 천하지배의 정통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즉, 지카후사는 삼종의 계승자가 진정으로 하늘의 지위와 덕의 계승자라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삼종을 가진 고다이고천황이 정통한 통치자로서 백성 위에 군림하는 정통한 황통의 증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황위계승의 상징으로 삼종의 신기 계승을 중시한 지카후사의 상징론은 그의 독특한 역사관으로 삼종의 신기를 계승한 남조의 천황의 정통성을 주장하려 하였던 지카후사의 정치적 주장이기도 하였다. 신기없이 다카우지가 황위로 옹립한 코우곤천황을 「위왕(偽主)」으로 규정하며, 이 즉위식을 거행한 북조의 정통성을 부정하였다. 그러면서도 삼종의 신기를 가지고 안토쿠(安德)천황이 서해에 빠져 신기없이 즉위식을 행한 고토바천황에 관해서는 「천조(践祚)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지만 법황이 국가의 본주(本主)로 정통하게 즉위하는 것이므로 황태신궁인 아타미(熱田)의 신이 명확하게 보호하심으로 이는 천위(天位)라 봐야 할 것」(고토바)[35]이라며, 거울과 검을 모시고 있는 황대신궁인 이세, 아타미 양신의 가호를 기원하며, 이 즉위가 정식이라고 인정하는 모순을 일으켰다. 지카후사가 신기를 이정도로 강조한 것은 아마테라스의 가호를 삼종의 신기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려 하였고, 일본이 불교국가가 아니라 아마테라스의 항시 군림하는 신국이라기 주장을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오스미 카즈오(大隅和雄)의 지적처럼 지엔이 삼종의 신기를 주술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밖에 보지 않는 견해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36]

---

34) 同上書, 154頁.
35) 同上書, 153頁.
36) 大隅和雄, 『愚管抄を読む 中世日本の歴史観』, 講談社学術文庫, 2005년, 277頁.

이와 같이 황통의 정통성의 상징으로 계승되어온 삼기를 지카후사는 일본이 신국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표로 보았다. 당시,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어지기 시작한 신도설을 채용한 지키후사의 신기에 대한 설명은 남조의 정통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였다. 삼종의 신기를 매개로 한 신국사상은 고대로부터 존속되어온 것으로 7세기 전후, 고대율령제의 확립을 계기로 아마테라스를 정점으로 기기신화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기기신화는 10세기이후 율령제의 해체와 더불어 변화되었다. 원정기 이후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 아마테라스를 정점으로 한 기기신화의 해체에 의하여 아마테라스도 지고의 국가적인 신에서 황실의 사적인 천황가의 조상신으로 재탄생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가마쿠라 막부 성립으로 다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무사정권의 성립으로 그 동안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막대한 권력의 일부를 무사들과 공유하게 된 귀족들은 위기감을 갖게 되었고, 무사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귀족들이 중세적인 신국사상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생각은 『신황정통기』의 전권에 걸쳐 나타난다. 지카후사는 일본이 외국에서 그 예가 없는 신에 의하여 지켜지는 신국으로서의 일본의 우월론을 주창하였다. 지카후사의 신국사상의 논점은 아마테라스의 직계로 인간으로 태어난 「신」인 천황이 일관되게 지배하여온 일본은 신에 의해 보호받은 신국인 것이다. 아마테라스를 천조로 칭하고, 황통의 시조이며, 신지적(神祇的)인 국가라는 것이 명치원년으로부터 신자관계의 문서뿐만 아니라 헌법, 교육칙어 등 다양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37] 원래 일본을 신국으로 표현한 최초의 기록은 『일본서기』으로 진구황후(神功皇后)난에서 등장한다. 이는 진구황후가 이끄는 일본군이 신라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고 신라의 왕이 놀라, 스스로 항복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으로부터 원정시대 이후, 신국이라는 단어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신국으로서의 일본이라는 의식이 매우 고조되는 계기가 된 몽고침입이다. 1260년, 원을 건국한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는 1268년부터 73년까지 6번에 걸쳐서 조공과 원의 소국이 될 것을 요구하며 일본에게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런데, 집권(執権)[38], 호조토키무네(北条時宗)를 중심으로 한 가마쿠라막

37) 子安宣邦, 『国家と際祀 国家神道の現在』, 青土社, 2005년, 72頁.

38) 집권(執権)은 쇼군을 도와 정부를 총괄하는 가마쿠라막부의 직책명이다. 가마쿠라 막부를 창시한 미나모토 요리토모의 사후, 막부의 실권은 그의 아내인 마사코(政子)와 그의 아버지인 호죠 토키마사(北条時政)의 손으로 들어갔고, 도키마사는 제

부는 이것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몽연합군은 1274년(文永の役)과 1281년(弘安の役), 두 번에 걸쳐 일본을 습격했다. 집단 전법, 화약 등 신무기를 사용한 여몽연합군에 일본의 무사들의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두 번 모두 폭풍우, 즉 신풍이라는 불리는 바람이 불어 원군을 퇴각시켰다. 이 두 번의 몽고침입을 전후로 어린 고우다(後宇多)천황대신 원정정치를 펼친 고우다천황의 아버지, 가마야마상황(亀山上皇)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승전기원의 기도가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 때까지의 정토계의 각 종파의 기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을 말세로 보는 말법사상이 현실의 국난극복의 상황의 체험을 계기로 국가적인 자신을 얻고, 언제나 일본은 신명(神明)의 보호를 받는 나라라는 신국사상을 만들어내었다.[39] 이 같은 신국사상은 몽고침입이래, 일본을 지키기 위해, 「신풍」을 일으켰다는 믿음이 급격히 내셔널리즘고양으로 이어졌다. 지카후사는 이와 유사한 한 예로 동국과 싸우던 노리요시왕자(義良親王)의 배가 이주반도에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같은 바람이면서도 동서로 나뉘어져 본 것은 말세에는 보기 드문 신의 배려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다이고)[40]라며 노리요시왕자의 배만이 이세로 되돌아온 것은 아마테라스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오랫동안 천황은 국가권력이 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졌다고 생각되는 시기에는 어김없이 일본을 지키는 친림자(親臨者)로서 나타나곤 하였다. 몽고침입은 외부 세계는 괴물이 사는 곳이라는 알 수 없는 공포감을 일본인에게 갖게 하였고, 그런 와중에 불어 닥친 신풍은 일본과 천황을 극단적으로 신성화하는 신국사상으로 이어지기에 충분하였다. 즉, 천황은 신도 국왕도 아닌 존재로서 일본이라는 나라의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존속하며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역사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몽고의 침입으로 인한 신국사상의 고양은 신도사상의 확립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 시기에 이세신도(伊勢神道)가 성립하였다. 이세신도는 이세신궁의 사관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된 것으로 이세신궁의 외궁사관이었던 와타라이 이에유키(度会家行, 1256—1351)에 의해 완성되었다.[41] 이세신도는 이세

1대 집권으로 절대 권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후 호죠가문은 가마쿠라막부가 멸망할 때까지 집권을 독점하였다.

39) 近藤 成一 編, 『日本の時代史 9 モンゴルの襲来』, 吉川弘文館, 2003년, 132-144頁.

40) 岩佐正の他 注釈, 『日本古典文学大系 87 神皇正統記 増鏡』, 前掲書, 190-191頁.

의 전통적인 신불격리를 교리화하였고, 이후 신본불적설(神本仏迹説)의 형성과 근대의 폐불론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신도가 이론화된 것은 헤이안말기로 처음에는 승려들에 의해 오하라에고토바(大祓詞)의 해설이나 기기신화 등에 등장하는 신이나 신사의 각 신들의 의미가 해석되었다. 신불습합(神仏習合)이 마치 역사적 사실처럼 설포되면서 본지수적설(本地垂迹説)이 성립되었다.

본지수적설이란 부처, 보살 등 불교의 신불이 신이 되어 일본각지의 신사에 모셔져 있는 신(神)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헤이안말기부터 가마쿠라초기, 불교계에서 적극적으로 신지신앙(神祇信仰)을 포용하고 통합하려는 의도로 탄생된 본지수적(本地垂迹)사상은 본래 「법화경(法華経)」에 포함되어 있는 불교의 사상으로 천태종도 진언밀교도 신불습합사상을 수용하였다. 불본신적(仏本神迹)의 입장에 선 본지수적설(本地垂迹説)[42]은 귀족의 신국사상고양과 중생은 모두 본래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헤이안불교의 본각문(本覚門)사상에 입각하여 신본불적사상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그 결과, 밀교를 중심으로 『고사기』 『일본서기』의 신화와 신화 속의 신들을 본지수적설로 재해석하고, 부처의 세계가 신지(神祇)의 세계보다 위에 서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성공시켰다.[43]

그러나, 가마쿠라 시대에 들어서서 불교의 민중화, 대중화에 따른 세력 확대에 의한 각종파의 등장, 구불교와 신불교 사이의 갈등, 불교계 종파들의 신도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표명은 신도를 자극하여, 신을 본지, 부처를 수적으로 보는 신도(神道)사상이 등장했다. 이들은 기존의 불교의 주장을 전면부정하며 신도를 폭넓고 깊이 있게 전하기 위해 유불이 가상의 모습으로 일본에 전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세신도는 본원적인 원초의 존재를 기기신화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신=쿠니도고다치노가미(国常立神)에게서 찾음으로 불교가 주장하는 본지수적설을 부정하였다. 이세신궁의 아마테라스는 황실의 선조신인 황조, 아마테라스를 황국의 원시적대신(始源的大神)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종교적 차원에 머물러있었다. 그러나, 신주불종의 입장에서 유, 불은 가상의 모습으로 화현(化現)한 것이라고 생각한 이세신도는 「아마테라스의 마음」에 의한 「일본의

41) 久保田収, 『中世神道の研究』, 神道史学会, 1959年, 1頁.

42) 무라오카는 본지수적이라는 말은 신불습합의 제3단계에서 등장하는 개념으로 수적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859년의 『삼대실록』중 『혜량의 표』라고 한다(무라오카 츠라츠쿠, 박규태 역, 『일본신도사』, 예문서원, 1998년, 79쪽).

43) 義江彰夫, 『神仏習合』, 岩波親書, 1996년, 167-169頁.

길」, 즉, 신의 길을 「설포」하기 위해 전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반본지수적 사상은 「요시다신도(吉田神道)」에 이르러 「신을 본지로 하고, 부처를 수적으로 한다」는 신본불적 사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요시다신도는 신도가 종자·근본이며, 유교는 잎이며, 불교는 꽃으로, 신도를 중심으로 주체적인 종교의 종합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헨(慈遍)으로 시작되어, 요시다 가네토모(吉田兼倶)로 계승된 「근엽화실설(根葉花実説)」은 일본의 신도만이 근원이며, 거기에서 잎과 꽃, 과실에 해당하는 유교나 불교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일본중심주의적인 면이 강하게 대두하였다. 이와 같은 생각은 이세신도는 머무르지 않고, 불교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수에끼 후미히코의 지적처럼 몽고침입이전의 「신국」사상은 일본을 작게 보는 사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지만 몽고침입이후는 일본중심론으로 변화했다. 이 같은 일본중심주의는 에도시대의 복고신도에 현저하며, 명치이후의 국가신도에서의 근대적 내셔널리즘과 연결되었던 것이다.44)

지카후사가 삼종의 신기를 황위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로 거론한 배경이나 불교나 유교는 「권화(権化)의 신성」이며, 「대일본은 신국」이라는 생각이 이세신도의 영향만이 아니겠지만, 지카후사의 사상에서 이세신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45) 그것은 『신황정통기』의 의도를 「신도의 길이 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라의 근원을 모르게 되는데, 그것은 혼동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 과오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신대로부터의 정리(正理)에 의한 황위계승을 말하려 하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생략하고 그 이름을 신황정통기라 하려 한다.」(신대)라는 설명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신대로부터 제대로 황위가 계승된 것에 신도의 근원은 갖추어진 것이라고 지카후사는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도적 해석을 시도한 것이 지카후사의 황통에 대한 생각이었던 것이다.

이세신궁 외궁의 사관, 와타라이에 사사를 받은 지카후사는 신도, 그 중에서도 이세신궁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으면서 그 중에서 신뢰성이 높은 것만을

---

44) 『中世の神と仏』, 前揭書, 13-14頁.

45) 38세로 출가한 지카후사는 진언종의 연구서, 『진언내증의(真言内証義)』를 출간할 정도로 불교이론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세신도를 공부한 당시 최고의 사상가였다. 그 중에서도 이세신도의 창시자인 와타라이 이세유키의 신국사상은 지카후사의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에유키는 겐무신정(建武新政)이 좌절된 후 남쪽조 동난으로 남조의 지카후사를 지원하고 이세의 남쪽지역의 군사적 활동에 헌신한 인물이다(我妻建治, 『神皇正統記』吉川弘文館, 1981年).

취사선택하여 그의 사상적 기반을 형성하였고[46], 거기에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유교, 불교를 도입하면서 그 사상적 기반을 보충한 것이 지카후사의 사상이라고 생각된다. 지카후사의 신국사상도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세신도를 근거로 그것을 천황의 계보로 까지 연결함으로서, 천황의 정통성을 논하였다.

Ⅳ. 지엔(慈円)의 '도리(道理)'와 지카후사의 '정리(正理)'

지카후사의 『신황정통기』와 더불어 1220년경 지엔(慈円, 1155-1225)에 의해 집필된 『구안초(愚管抄)』는 중세를 대표하는 서적으로 가마쿠라와 남북조라는 약 100년의 세월의 텀이 있지만 이들 서적은 호겐, 헤이지의 난(保元・平治の乱), 겐페의 난(源平の乱), 쇼큐의 난(承久の乱)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란으로 귀족이 한순간에 무사의 칼 앞에 무너져 내리고, 일본역사상 처음으로 천황이 유배되는, 그때까지 일본이 경험하지 못한 대혼란기를 살아가며, 불교와 신도라는 서로 다른 종교적 기반에서 지엔은 「도리(道理)」, 지카후사는 「정리(正理)」로서, 도대체 역사를 움직이는 「고토와리(理)」란 무엇이며, 역사에서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구안초』의 저자, 지엔은 섭관가인 후지와라 타다미치(藤原忠通, 1097-1164)의 아들로 13세에 출가하여 불교계의 최고의 지위인 천태종의 좌주로서 고토바천황의 수호승이 된 인물이다. 하지만, 지엔에게는 가마쿠라막부와 각별한 관계를 가진 형, 구죠 가네자네(九条兼実)의 후견인이라는 역할도 수행해야 했다. 섭관, 원정정치를 부정하고, 아마테라스의 적통인 고다이천황에 의한 친정(親政)정치의 실현을 지향한 지카후사[47]와는 달리 황실과 막부 모두를 지켜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지엔은 「섭관과 무사쇼군을 한 몸에 겸비한 천황정치를 회복하는 섭록(摂籙)[48]쇼군정치)」[49], 즉, 귀족과 무사의 조화로운 협력이야 말

46) 무라오카 츠라츠쿠, 박규태 역, 『일본신도사』, 예문서원, 1998년, 95-96쪽.

47) 石田一良, 『愚管抄の研究 その成立と思想』, ペリカン社, 2000年, 252-253頁.

48) 섭정정치에서 천황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는 직책을 지칭하는 것으로 섭정의 별칭으로 「이치노 히토(一の人)」, 「이찌자(一座)」 「세츠로쿠(摂籙))」 「하쿠리쿠(博陸)」 등으로 불리었다.

49) 『日本の名著 9 慈円 北畠親房』, 中央公論社, 1971年, 311頁.

로 가장 이상적인 도리에 합당한 정치형태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겐코의 난(1221) 발발 직전에 출간된 『구안초』는 섭관정치를 없애고 귀족과 무사가 통합한(公武一統) 원정정치의 실현을 위하여 막부정권타도를 단행하려 하였던 고토바상황(後鳥羽上皇, 1180-1239)의 도막계획을 미연에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가마쿠라는 귀족계급의 지배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사계급이 자신들의 정권을 확립한 시대로 무상감에 근거한 말법사상과 이 세상에 정토가 있다고 믿는 정토신앙이 유행하였다. 지엔은 천황, 상황, 막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하극상 풍조가 만연한 당시상황을 「도리에 반한 것을 도리로 하려는 나쁜 기도를 하고, 잘못된 도리를 행하는 것이 도리라는 도리가 나타났다.」(卷第7)[50]며 무도(無道)한 것이 통용되는 세상이 된 것을 한탄하였다. 이렇게 조정정치가 쇠태하고 세상이 점점 도리가 없는 「말법」으로 떨어지게 된 것은 「호우겐 원년[51]7월2일 토바인(鳥羽院)이 돌아가신 후, 일본국에 난역이 일어나 후, 무사의 세상」(卷第4)[52]이 되고, 귀족과 무사의 조화로운 협력체계를 부정한 고산죠(後三条)천황의 친정, 원정정치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53] 섭정가출신으로 불교계의 최고봉의 위치에 있던 지엔에게 고산조천황, 시라가와인(白河院)이 국정을 장악한 원정의 성립은 섭관정치를 부정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섭정가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섭관정치를 바람직하게 생각하던 지엔은 원정의 성립으로 인해 막부, 섭관가, 천황, 상황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무사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변화를 지엔은 지카후사처럼 되돌리려 하지 않고, 역사는 끊임없이 유동적이며 생기소멸(生起消滅)하는 것으로 「세상의 도리라는 것이 변화하는 것을 밝히려면, 모든 존재는 단지 도리라는 두 글자에 의해에 지탱되는 것으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卷第7)이라며 인간의 역사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도리가 있다고 단언한다.

그러면서 「사물의 도리(物ノ道理)」를 밝히기 위해 일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역사를 관통하는 도리를 찾아내려하였던 지엔은 「잘못된 일도 또한 도리

50) 同上書, 307頁.

51) 호겐(保元)은 일본의 원호로 1156년부터 1158년까지의 기간을 지칭하므로 호겐원년은 1156년을 말한다.

52) 『日本の名著 9 慈円 北畠親房』, 前掲書, 204頁.

53) 同上書, 311頁.

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일이 매우 중대한 것」(卷第7)[54]이라며 좋은 것 뿐 만아니라 나쁜 것조차도 그 나름대로의 도리에 의하여 지탱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역사의 각 단계를 동향을 「도리」로 설명하려는 지엔은 황위계승의 도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도리는 13대 세이무(成務)까지가 계체정도(繼躰正道)로 국왕은 보좌하는 신하도 없이 혼자서 다스렸다. 츄아이(仲哀)때, 국왕에 자녀가 없어 손자라도 황위를 계승한다는 새로운 도리가 등장했다. 츄아이는 신탁을 받았으면서도 그 뜻을 다하지 못하고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는 가미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일이 많아 빨리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황후[55]는 여자의 몸으로 왕자를 수태까지 한 몸으로 전투의 대장군이 된 것과 아들이 태어난 후에도 60년간, 황후가 국정의 좌에 안아있었던 것은 어찌된 일일까. 이는 무슨 일이라도 특별히 정해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점점 명확해 졌을 것이다. 남녀의 성별에 의하지 않고 천성의 기량을 먼저 생각하는 도리, 어머니인 모후가 생존하였을 때는 모후의 뜻에 따라 효행을 다하는 도리, 이러한 도리를 말세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다. 또한, 세이무(成務) 전의 케이코(景行)천황 때, 처음으로 다케우치(武内)[56]을 대신으로 두었다. 이것 또한, 신하가 나타나는 도리이다. 다케우치는 제8대, 고우겐(孝元)천황의 손자에 해당하는 인물이다(卷第3).[57]

일본의 황위상속과정을 통하여 도리의 변천을 고찰한 지엔은 황위계승에서 도리가 지켜진 것은 13대까지라고 보고 있다. 이는 14대 천황인 츄아이천황이 자녀가 없어 손자가 황위에 즉위하게 되므로 도리에 「새로운 도리」가 생기고, 거기에 츄아이천황의 요절로 진구황후(神功皇后)가 국정을 돌보게 되면서 황위는 남녀의 성별이 아닌 능력이 중시되고, 자녀는 어머니께 효를 다하는 것이 도리에 합당하다는 도리가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지엔에게 도리는 「어떤 일도 정해진 것이 없는 도리」이며, 시대에 따라 「각각의 그렇게 되는 도리」로 상황에 순응하는 운명적인 도덕관에 근거한 것이다. 그는 도리의 단계를 7단계로 나누어, 「일본국은 초기부터 왕과 신하의 기량과 가지고 태어난

---

54) 同上書, 304-305頁.

55) 여기서 황후는 진구황후(神功皇后)를 가리키고 있다.

56) 다케우치노 수쿠네(武内宿禰)는 『고사기』 『일본서기』에 의하면 야마토정권초기의 대신으로 활약한 전설속의 인물로 세이무, 츄아이, 오우진, 닌토쿠 4대의 천황을 모셨다. 또한, 진구황후의 신라정발시, 신탁을 받아 신라정벌을 결정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57) 『日本の名著 9 慈円 北畠親房』, 前掲書, 137-138頁.

행운이 점점 쇠퇴해짐에 따라 도리라는 것이 새롭게 바뀌고, 세상이 변하고 시간이 흘러왔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시작에서 끝으로 이동해가는 근본의 도리에 불법과 왕법과 상고(上古)와 중고(中古)와 왕과 신하와 만민의 뛰어난 재능 등의 각 요소가 이처럼 결합되어있고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卷第7)[58]이라며, 역사가 시작될 때의 사람들의 능력도 뛰어나고, 세상에 악이라는 것도 없고, 사람들이 모든 만물이 도리를 이해하였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불의 도리와 인간세계 사이에 거리가 크게 벌어져 인간이 신불의 도리를 이해할 수 없어지고, 천황은 신하의 보좌없이는 정무를 보는 것이 어렵게 되어, 섭정관백이 출현하였다. 그 후, 인간은 「도리에 반한 도리가 도리로 만들려는 나쁜 기도」를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임금과 섭록(摂籙)이 한 마음」(卷第7)이 된다면 어느 정도 도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엔은 일반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은 명(暝)과 눈에 보이는 현(顕)이 있다고 한다. 오스미 카즈오는 명의 세계를 4개로 나누어 첫째는 시대를 넘어선 힘을 가진 신으로서의 황조신인 아마테라스, 후지와라의 조상신, 아메노고야네미코토, 두 번째는 「명의 세계」의 것이 「현의 세계(顕の世)」에 가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화신(化身)」 「권화(権化)」가 있다고 하였다. 「불법으로 왕법을 지키려는 것이다. 불법이 전래되었으므로 불법없이는 왕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 관음의 화신인 쇼토쿠태자가 나타난 것은 이와 같은 의미였다는 것을 확연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다시 말하면 부처, 보살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고마운 분이라는 것은 그 분이 돌아가신 후에 들게 되는 생각으로 쇼토쿠태자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여도 살아있을 때에는 단지인간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었다.」(卷第3)[59]라며 쇼토쿠태자가 세상의 명과 현으로 나뉘어진 뒤, 불법이 왕법을 지키는 도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명의 화신으로 등장하였다고 보고 있다. 세 째는 인간의 원한이 깊어 역사를 변화시키는 원영, 넷째는 텐구(天狗)·요괴 같은 사악한 동물들로 상정한다.[60] 그러면서 오스미는 「신들이 정한 일이란 결국은 군신이 물과 물고기처럼 하나가 되는 것으로」, 「4사람의 권자는 불법과 후지와라의 입

58) 同上書, 306頁.
59) 同上書, 143-144頁.
60) 大隅和雄, 『愚管抄を読む 中世日本の歴史観』, 前掲書, 129-134頁.

장을 옹호하는 사람들로 섭관가에 태어나 천태좌수가 되고 구조가의 후견인인 지엔의 입장 그 자체를 정당화시키려는 정치적 주장」[61]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오스미의 지적처럼 지엔이 생각하는 도리에 합당한 정치형태는 후지와라가문이 천황을 보좌하는 섭정정치였던 것이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지엔에게도 역사에는 인간의 의지를 넘어 세계의 종말로 이끌어 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부동의 대원칙이 있다고 생각했다. 「어떤 일이라도 궁극의 도리라는 것이 존재한다. … 국왕으로부터 비천한 백성들까지 다양한 자들이 있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국왕에게는 세상일을 훌륭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일본국의 전통은 국왕집안이 아닌 사람이 국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신대이래도 정해진 것이다.」(卷第7)[62] 라며 본지수적, 즉, 부처를 본으로 생각한 지엔이었지만, 황위의 문제만은 황족 중에서 천황이 탄생되는 원칙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유일무일한 원칙으로 여겼다. 이 일을 지엔은 자세하게 「중국의 왕조가 주안에 두고 있는 것은 국왕이 되는 사람의 기량하나로, 기량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들어 그 사람을 국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처음부터 왕의 혈통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 적이 없다, 신하의 가문도 또한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오늘날까지 잘 못된 적은 없었다」(卷第7)[63]라며 일본은 중국과 달리, 기량이 좋은 사람들이 국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황조신인 아마테라스가 그 자손을 지상에 내려 보낼 때, 정해진 혈통만이 국왕과 신하가 될 수 있다고 단정한다, 지엔에게 있어서 정통한 황위계승은 지카후사와 마찬가지로 천황은 천황의 혈통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또 하나, 불변한 도리는 천황과 섭정가의 관계였다. 「국왕이 되는 분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훌륭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후견인으로 대신이라는 신하를 두고, 신화와 상담을 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정해졌다. … 오타마시 다미야(太神宮)[64]와 하치만대보살(八幡大菩薩)의 가르침에 의하면 '후견인 역의 신하와는 조금도 마음에 거리를 두지 않도록 하여라'며 어수합체(魚水合体)의 예로서 정해졌다. 천하가 평안과 혼란은 이 군신의 관계로 정해지는 것

61) 同上書, 135頁.
62) 『日本の名著 9 慈円 北畠親房』, 前掲書, 308頁.
63) 同上書, 324頁.
64)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이세의 황태신궁(皇大神宮)인 내궁을 뜻하기도 하고 이세의 내궁과 외궁을 총칭하기도 한다.

이다.」(巻第7)[65]라며 천황의 정치가 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아마테라스가 후지와라의 조상신인 아메노고야네(春日大明神)[66]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에 의하여 후지와라가 천황을 보좌하는 후견인역할을 하도록 정해졌다고 주장한다. 무사가 새로운 권력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도리 속에서도 천황과 막부를 둘러싼 후지와라의 역할은 변하지 않고, 정법한 것으로 보고 있는 지엔의 견해로부터 섭정가 후지와라, 그 중에서도 구조가(九条家)를 옹호하는 입장이 매우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무사의 존재를 부정하고, 귀족의 지배하에 두려는 지카후사에 대하여, 지엔은 무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아마테라스, 아메노고야네미코토, 하지만대보살이 힘을 합친 귀족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67]

맺는말

일본에서 천황의 정통성과 신성함이 신국론과 더불어 표면에 부상한 것은 가마쿠라말기, 즉 1270년, 몽고침입이후였다. 이 국가적 위기상황은 외부세계에 대한 강한 공포감과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을 고양시키기에 충분했다. 또한, 일본에서의 천황의 존재의 의미가 부상한 것도 이 시기였다. 또한, 이 일로 황실의 황조신인 아마테라스를 모시고 있는 이세신궁이 주목받았고, 이세신궁의 신관인 와타라이에 의해 제창된 이세신도를 중심으로 신국사상이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몽고침입이 신국사상이 등장하는 유일한 원인이라 할 수는 없다. 섭관정치와 원정정치는 자신들의 권력의 근거인 천황의 힘을 저하시켰고, 천황의 권력상실은 귀족정치의 약화와 무사가 정치권력의 무대에 등장하는 기반을 만들었다. 그 결과, 일본역사상 처음으로 무사에 의한 가마쿠라막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겐지라는 무사에 의한 가마쿠라막부의 성립은 종래의 신분질서를 파괴하고, 사회, 경제, 종교 등 전반에 걸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기에 충분하였다.

---

65) 『日本の名著 9 慈円 北畠親房』, 前掲書, 309頁.

66) 아메노고야네(天児屋根命)는 후지와라(藤原)가문의 선조신으로 아마테라스가 아마노이와토(天岩戸)에 숨어있을 때, 그 앞에서 축사를 읽고, 천손강림때에 니니기를 모시고 다카치호 봉우리에 강림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67) 石田一良, 『愚管抄の研究 その成立と思想』, 前掲書, 253頁.

이렇듯 섭관과 원정정치가 무사계급 등장을 가속화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제정분리와 무사의 등장은 역사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일본은 고대에서 중세로 돌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수용할 수 없었던 고다이고천황은 그를 지지하는 귀족계급과 더불어 쇼츄의 난, 겐코의 난, 겐무중흥을 통하여 천황이 다시 한 번 친정을 펼치는 왕정복고를 시도하였지만, 그것도 잠시뿐, 요시노에 건설한 남조는 허무하게 아시카가 다카우지에 의해 정복당하고 말았다. 무너져가는 왕정시대를 바라보며 1320년 기타바다케 지카후사는 『신황정통기』를 통해, 천황은 일본의 창조신의 혈통을 지닌 천손이며, 일본은 천손의 직계에 의해 통치되어야 하는 신국임을 신대로 거슬러 올라가 증명하려 함으로 천황에 의한 친정과 귀족정치의 정당성과 주장하였다. 또한, 지카후사는 천황의 정통성을 삼종의 신기의 전승에서 찾았는데, 이는 그가 받들고 있던 고다이고천황과 그의 아들, 고무라가미천황의 정통성을 사상적으로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천황의 힘을 믿고 싶었던 귀족집단이 「신」격화된 천황의 모습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근거를 찾으려 『신황정통기』을 저술했다고 한다면, 1220년대에 집필된 『우관초』는 그 보다 앞서서, 불교논리를 가지고 천황의 존재의미를 설명한 서적이라 할 수 있다. 『우관초』가 쓰인 가마쿠라전기는 무가정치의 출현으로 귀족과 무사의 대립이 결렬하던 시대로 급변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엔은 보편적인 도리를 불교에서 찾으려 하였다. 고토바상황의 수호승이면서 섭정가인 구조가(九条家)를 지켜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지엔은 막부토벌에 실패한 고토바천황이 유배되는 사태를 직시하며, 귀족과 무사의 조화로운 협력이야 말로 가장 이상적인 도리라고 생각하였다. 지엔이 승려이기는 했지만, 지카후사와 마찬가지로 아마테라스의 칙사를 영원불변의 대원칙으로 상정하고, 아마테라스와 아메노고야네 사이에 주고받은 약속이 귀족사회의 질서의 근간을 이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승려의 위치에 있었던 지엔에게 불법은 왕법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고, 왕법은 불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것이었다. 이것은 헤이안시대로부터 불교가 주장해온 본지수적설에 의거한 것이었다.

이에 반해, 지카후사는 신본불적사상에 근거하여 부처를 신의 화신으로 보았으며, 일본은 부처가 아닌 신에 의해 통치되는 신국이라고 주장하였다. 기기신화에 근거한 그의 견해는 황통의 정당성은 아마테라스가 천손을 지상으로 내려 보낼 때, 하사한 거울, 검, 구슬이라는 삼종의 신기에 의하여 증명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삼종의 신기를 계승한 고다이천황의 정통성과 동시에 북조에 대한 남조의 우월성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천황과 귀족을 결부시킨 신화전승이나 씨족계보를 재확인함으로 다카우지를 견제하고, 헤이안시대의 군신관계와 신분제도를 되찾으려는 귀족으로서의 지카후사의 의도가 숨어있었다. 이와 같이 1100년대부터 1300년대는 무사와 귀족, 불교와 신도가 갈등하면서 새로운 힘의 조화를 만들어낸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지카후사의 신국관은 이후 18세기, 불교, 유교, 중국이라는 타자에 대하여 일본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를 사상적으로 고찰한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의 신도관에 영향을 주었다. 국학의 신도관은 기기신화가 전하는 신화의 정통성과 기원을 학문적으로 확립하면서 동시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보편적 방법론으로서 미치(道)를 표명하기 위한 도정이었다. 이처럼 노리나가의 국학은 명치신정부가 만세일계의 천황을 주창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신도를 정치에 연결하고자 한 지카후사의 『신황정통기』의 독특한 사상은 국가신도 이데올로기 속에서, 특히 남조정통론과 연결되어 세속화되어, 왕정복고를 통한 신정정치를 지향하는 명치국가의 이데올로기를 보강하는 것으로 이용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가마쿠라 혼란기를 거쳐 일본의 종교, 문학의 미감이 커다랗게 변화했다는 것이다. 본론에서 고찰한 것처럼 가마쿠라시대가 되어 커다랗게 변화한 것은 종교성이 전면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헤이안시대 말기부터 가마쿠라중기에 걸쳐 이어져온 사회불안에 화답하듯 가마쿠라 신불교라고 불리는 종파가 계속하여 탄생하였다. 호우넨, 신란, 잇펜의 정토계교단, 에이사이, 도켄의 선종, 니치렌의 화엄종 등으로 하나의 교의를 선택하여 이것에 전념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포하였다. 신불교는 불안에 떨고 있는 무사나 서민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중세불교계의 커다란 흐름을 만들었다. 정치, 경제상의 실권을 상실한 도쿄의 귀족은 하급무사가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가마쿠라시대를 부조리가 이(理) 로 통용되는 세상으로 인식하였다. 귀족사회의 쇠퇴와 헤이케의 번영, 겐지의 봉기, 겐페의 싸움, 헤이케의 명망을 통하여 권력의 무상함을 관망하게 된 귀족들에게는 무상감에 근거한 말법사상이 유행하고, 그로 인해 정토신앙이 한층 고양되었다. 그것은 『헤이케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 정토를 구하면서, 역사에서의 정통성이나 이(理)를 운명론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귀족의 무상감과 고뇌는 도바상황의 칙령에 의하여 편집된 『신고금화가집(新古今和歌集)』(1205년)에 매우 짙게 반영되었다. 문학에 도피처를 구하듯 『신고금화가집』의 대표적인 가인(歌人), 후지와라 순제(藤原俊成)는 유겐(幽玄), 유심(有心)의 개념을 성립시키고, 그것을 순제의 아들, 테이카(定家)는 「여정요염(余情妖艶)」 등 화려한 기교를 사용한 와카가 등장하였다. 「가도(歌道)」가 성립한 것도 이 시기로 유미주의적 색체를 띈 와카는 환상적, 회화적, 사아징적, 기교적인 독자적인 미의 세계를 성립시켰다. 와카의 세계는 이전에 볼 수 없는 미야비(雅)를 기조로 세련되어갔지만, 내용적으로는 멸망과 애조성을 띤 자연관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가마쿠라시대의 종교와 예술은 무사가 가진 강인함이 더해져 리얼리즘에 근거한 새로운 종교, 예술과 더불어 무사의 세상에 등을 돌리고, 「신」을 중심으로 한 상징성이 강한 예술을 탄생시켰다. 그것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이 있는 간접적 표현이 많은 『신고금화가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마쿠라에서 남북조시대에 걸쳐 최대 이슈로 떠오른 「신」의 문제가 이 시기의 일본문학 및 미술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이어진 논문에게 논하기로 한다.

<日文要約>

『神皇正統記』における神国思想と「神」としての天皇

崔 裕 景

現在、日本の憲法上、天皇は象徴と位置づけられ、国政上独自の地位を与えられている。しかし、天皇を中核にする国家体制を取った明治時代おいて天皇はひとつの血統で神代から継続してきた′神聖にして侵すべからず′存在で、′国政の総覧者′であり、日本は万世一系の天皇によって統治される国であるされた。天皇の天孫降臨神話は『古事記』や『日本書紀』に基づいているが、日本で天皇の正統性と神聖さが神国論とともに表面に急浮上したのは1270年の猛攻襲来以後である。元寇による神国思想の高揚は天孫降臨を歴史として体系化させた北畠親房の『神皇正統記』を産み出した。1320年に書かれた親房北畠の『神皇正統記』は天皇が神と一筋の正統な血統をもつ天孫であり、日本は天孫の直系によって支配される神国であるということで、後醍醐天皇の新政への夢の思想的根拠を作りだそうとした。天皇の力を信じたい貴族集団が「神」である天皇を祭り、『神皇正統記』が生まれる基盤を作り出したとすれば、１２２０年代に書かれた『愚管抄』は、この先触れとして、仏教論理を用いて天皇のあり型について説明する。

『愚管抄』が書かれた鎌倉前期は武家政治の出現によって公武両政権の対立抗争のはげしい時代であった。そのように急激に変化する変り行く歴史のなかで、慈円は普遍たる道理とはなにかを自分なりに見いだした。後鳥羽天皇の護持僧として鎌倉幕府と近い関わりをもつ九条家を守る立場にいた慈円は武力による幕府の討伐を試みる後鳥羽天皇が倒幕に破り、隠岐へ流罪される日本史上、初有の事態を直視しながら、公武の協調によるバランスのとれた道理であると主張した。親房と同様、日本のあり方とその移り変わりを神々の存在とその計らいで捉えようとした慈円は、天照大神の勅使を永遠不変の大原則としており、天照大神と天児屋根命との間に交われた約束が公家社会の秩序の根岸であると考えていた。しかし、慈円にとって仏法は王法の上位にあるもので、王法は仏法によって守られるものであった。これは平安時代から仏教側が主張していた本地垂迹説の立場によるものである。一方、親房は神本仏迹思想に基づき、仏を神の化身とし、日本

は仏ではなく神によって治められた神国であると唱えたが、これは記紀神話に基づいているもので、神々の歴史を記述することで、皇統の正当性が証明されると思っていた。その上、天照大神が天孫を地上に送り出す際に授けたとされる鏡、剣、玉という三種の神器によって証明されると主張した。三種の神器を以ての親房の正統論は三種の神器を継承している後醍醐天皇の正統性と同時に北朝に対する南朝の優越性を主張するためであった。また、天皇と公家を結びつけた神話伝承や氏族系譜を改めることで、尊氏を牽制し、平安時代の君臣関係や身分を取り戻そうとして公家としての親房の試みであった。このように１１００年代から１３００年代は武士と貴族、仏教と神道が葛藤しあいながら、新たな力のバランスを作り出した時代であったと言えよう。